

최근 수년간에 걸쳐서 배합사료는 다른 어떤 상품보다도 품질이 향상된 반면 가격면에 있어서도 극히 안정된 추세를 보여왔다. 보통 산란 계용 배합사료 가격의 상승율을 보면 1966년도를 기준(100%)하였을 경우 1966년의 kg당 24.52원에서 1967년 평균 가격은 26.87원으로 9.5%가 상승되었고, 1968년도에는 27.90원으로 13.7%, 1969년도에는 28.84원으로 17.6%가 상승되어 연 평균 5.9%의 가격 상승을 보였으나 이는 일반물가 도매지수가 연 평균 10% 이상 상승한 데 비한다면 극히 안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. 이와 같이 배합사료의 품질이 향상되고 가격의 안정을 기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배합사료 공장의 사료 가공기술 향상에 관한 꾸준한 노력에도 원인이 있었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정부 당국이 1967년도 하반기부터 부족 사료의 과감한 도입과 전기 공급 및 수입품목의 다양화를 기하여 원료사료의 수급을 원활히 하여 배합사료 공장으로 하여금 원료 선택을 용이하게 한 데 있다고 보겠다.

금년도 사료수급 전망에 대하여는 1월호에 구체적으로 설명한 바 있으므로 금월호에는 사료성수기(3~6월)를 앞두고 단기적인 사료수급 전망을 살펴 보기로 하겠다.

특히 양계용 배합사료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곡류사료 중 옥수수 수급전망을 보면 금년도 7월까지의 소요사료의 물량 확보가 가능하리라 전망된다. 즉 본 협회가 3~4월 중에 40,000톤의 옥수수를 현금 구매조건으로 수입할 계획이며 이 밖에 민수용으로 10,000톤이 4월 중 도입되고 재정차관분 34,000톤 이상이 수입계획을 감안하여 적기도입될 것이므로 총 84,000톤이 순조롭게 도입된다면 7월까지의 사료용 옥수수의 수요량 충족은 무난할 것으로 본다.

그러나 사료 수입에 있어 해상 운임의 인상과 현금 구매에 따른 실수요자(배합사료 공장)의 재정 부담이 미약하여 시중 금리(월리 4%)

부담 등 불리한 여건하에 놓여 있게 됨으로 물량면에서의 전기 확보는 가능하나 배합사료 가격의 다소의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.

단백질 사료의 주요 공급원인 어분의 수급실정을 보면 2월 10일에 1,200톤의 C&F 톤당 234\$이라는 비싼 가격으로 수입되었고 3~4월에 2,250톤이 225\$ 선으로 도입되며 식물성 단백질사료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대두박은 수출국인 미국시장의 안정으로 종전 가격 선으로 4~5월에 4,500톤이 수입될 것이다. 이 밖에 우모분·혈분 등 600톤이 4월경에 어분의 대체 공급을 위하여 도입될 계획이다. 또한 농협이나 퓨리나코리아와 한국카야길 등에서도 자체 수요량을 별도 조달(수입)할 것으로 본다.

한가지 단백질사료 공급에 있어서 특기하여야 할 점은 어분의 수출국인 페루에서 3월부터 금어기를 설정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어분 수급은 계속 불황기가 계속될 것이다. 이상과 같은 어분 수급에 대한 대비책으로는 국산 어분의 활용 방안과 동식물성 단백질사료자원 활용의 다양화를 기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.

참고로 강류사료 수급의 전망을 보면 금년 소맥 도입량이 1,200,000톤으로 추산되므로 월간 23,000~24,000톤의 소맥피가 생산될 것이고 도입 현미 590,000톤이 3~8월 중에 전량 도입된다면 월간 6,000톤의 탈지미강이 유통되므로 강류사료 수급은 양돈 부분의 급격한 증식이 예상되지 않는 한 원활할 것으로 전망된다.

배합사료 가격은 이와 같은 해상 운임의 인상과 금리 부담 등 불리한 수입 여건의 영향으로 1~2월보다 약 5%정도의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나 수급면에 있어서는 차질없이 풍부하게 공급될 것이므로 양축가 여러분은 양축 경영 합리화 방안을 강구하여 보다 유익한 양계경영이 이루어지도록 참고 있으시기 바랍니다.

